

■ KAA NEWS

1. 한국광고대회 11월10일 개최

국내 광고인들의 축제인 한국광고대회가 오는 11월 10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한국광고대회는 '한국광고와 뉴밀레니엄'을 주제로 개최되며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광고업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핵심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한민국광고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되며, 오후에는 20세기와 21세기의 광고산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발전상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광고대회에는 광고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사무국(733-1201)으로 하면 된다.

2. 올해 방송광고 1조 5,500억원 예상돼

방송광고 총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국감자료에서 99년 8월 말 현재 방송광고 판매총액은 1조 230억원이며, 올 연말까지 1조 5,500억원 내외로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 ABC 참여사 정부광고 우선배정 건의

문화관광부는 최근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65개 중앙행정기관과 18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등에게 공문을 보내 'ABC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ABC공사 참여 언론사에 대해 정부광고를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적극 협조하고 소속기관에도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8월 ABC 참여사에 대한 정부광고 우선배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실적이 부진하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4. 공정위, PCS 3사 비방광고 시정명령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등 PCS 3사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6개 중앙일간지에 '이동전화 시장의 독점 저지를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내 경쟁사업자인 SK텔레콤을 비방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 3사는 광고에서 'SK텔레콤은 연초부터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일삼으며 후발사업자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이동전화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5. 세계광고영화제 수상작 시사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는 1999 세계광고영화제 수상작 시사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2번째



개최된 이 시사회는 동서양의 우수 광고물을 한 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어 우리나라 광고의 질적인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에 소개해왔던 클리오, 칸느, ACC 및 대한민국광고대상 외에 아시아지역의 광고 흐름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애드페스트(ADFest) 수상작까지 시사회에서 소개했다.

6. 맥켄에릭슨 100% 출자 완전 독립

다국적 광고회사 맥켄에릭슨이 지난 10월 1일부터 100% 맥켄에릭슨 지분으로 전환되었다. 그간 이 회사는 맥켄에릭슨 51%, 김태환 등 개인투자자 49%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출자는 맥켄에릭슨이 한국 광고시장에서의 노하우와 자생력을 갖추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7. SK상사, TV미디어코리아와 제휴

SK상사는 자사 통신판매 브랜드인 '디투디'와 세계적인 텔레비전 홈쇼핑 회사인 TV미디어의 국내 자회사인 TV미디어코리아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SK 디투디는 이번 제휴를 통해 상품 정보를 공유하고 상품 개발 및 조달 능력을 강화해 매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TV미디어는 15개 나라에 해외 자회사를 가진 텔레비전 홈쇼핑 전문회사로 103개 텔레비전 채널과 220개의 케이블 채널, 2개의 위성채널에 광고를 하고 있으며 2개의 홈쇼핑 채널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8. 자율심의 3/4분기 좋은 광고 선정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자율심)는 3/4분기 좋은 광고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광고는 한국통신 기업PR '이메일'편과 LG화학 기업PR '인간의 꿈을 실현합니다'편, 아시아나항공 기업PR '공항서비스'편 등 3편이다.

9. 제일기획, PR출판전시회 개최

제일기획은 PR출판전시회를 개최해서 PR출판의 역사와 제작물을 소개하고 향후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제일기획 본사 1층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기업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매뉴얼리포트, 브로슈어, 정기간행물 등 PR출판물의 종류와 형태에 대한 고찰은 물론,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인 21세기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등 총 7개 부문 35종의 PR출판물을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PR출판업의 개념과 업무영역, PR출판 제작과정, 제작물 전시로 진행됐으며, 특히 PR출판 제작과정에서는 삼성그룹 채용 브로슈어인 '삼성인'을 모델로 하나의 출판물이 제작되기까지의 제작의뢰, 기획, 편집, 디자인, 제판, 인쇄 등 각각의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10. 금강기획, 삼보컴퓨터 영입

덴츠영앤루비컴, 애드벤처월드와이드, 광고춘추 등이 참가해 주목받았던 삼보컴퓨터의 경쟁 프리젠테이션 결과, 금강기획이 데스크탑의 광고권을 획득하여 삼보컴퓨터의 광고회사로 선정되었다. 예상 물량은 연간 100억원 정도다. 한편, 최근 강남구 신사동의 고려화학 빌딩을 임대해 본사를 옮긴 금강기획은 밤샘 야간작업이 많은 광고업종의 특성을 감안해서 2개의 야간 작업실과 침실을 갖춘 사무실을 마련, 업무에서 휴식까지 모든 것을 사무실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11. 병·의원 광고 전면자유화 해야

포스코경제연구소 오관치 박사는 한림대학교 과학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시장경쟁원리를 통한 의료공급의 효율화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의료계에도 병·의원 광고를 전면 자유화하는 등의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이 절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1월 의료보험 대통합과 의료보험 급여의 365일로 확대 그리고 내년 7월 의약분업 실시와 같은 의료 대변혁기를 맞아 국내 의료체제의 전면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그간 규제되어온 병·의원 광고의 전면허용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가격과 품질에 대한 광고가 금지되고 공개적인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의료공급부문의 효율화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2. 미디어플래너스클럽, 총회 개최

국내 미디어플래너들의 대표적인 모임인 '미디어플래너스클럽'이 국내 및 다국적 광고회사, 매체전문회사 등 미디어플래너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고기획에서 제1차 공식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칙개정, 회원정의, 총회일정, 활동계획, 신규회장단 선출 등 공동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신입 회장으로 제일기획 박정래 국장이 선출되었으며, 총무에는 LG애드 오완근 차장, 서울광고기획 신윤철, 금강기획 여경화씨가 그리고 고문으로는 제이월터톱슨코리아의 이명훈 이사가 선임되었다.

미디어플래너스클럽은 앞으로 업계 코드표준화 실행, 시청률 이원화 문제, 방송광고의 GS 판매제도 문제, 인쇄매체 단가체계 붕괴 등 업계의 많은 현안을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나가고,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광고의 과학화와 양질의 매체조사 데이터 산출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TNS, 1000가구 시청률 조사 실시

시청률 조사회사 TNS미디어코리아는 10월 1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 100가구 시청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TNS는 이날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 1,000가구에 대한 시청률 조사 자료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난 91년 미디어서비스코리아가 서울지역 300가구에 대한 시청률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실시되는 전국시청률조사다.

TNS미디어코리아의 민경숙 대표는 “준비작업이 차질 없이 수행돼 계획대로 전국 1,000가구에 대한 시청률 자료를 제공하게 됐으며, 앞으로 각 지역의 패널가구를 점진적으로 늘려 향후 5년 내에 패널가구 수를 2,500가구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디어서비스코리아를 인수, 합병한 AC닐슨코리아도 내년 상반기에 전국시청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